사람이 희망입니다.

KRIVET Issue Brief

2018
152호

발행인 나영선 | 발행일 2018년 7월 31일 |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졸 청년층의 직무 불일치 잠재유형 변화 분석

– 40% 이상의 대졸자들이 직무와 교육(기술) 수준의 불일치를 경험하고 있으며, 전공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 2005년에 비해 2015년의 경우 과소교육 및 과소기술 관련 응답 비율이 각각 5.3%p, 4.6%p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직무 수준이 자신의 교육(기술) 수준에 비해 높다고 느끼는 대졸 취업자들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의약계열과 교육계열의 경우 2005년 대비 2015년에 '과소교육–전공 일치 집단'의 비중이 다른 계열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고등교육의 책무성을 고려할 때 대학 졸업생의 직무 불일치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정부 및 대학 차원에서 재학생들을 위한 충분한 취업 정보 제공과 진로 · 취창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요구됨.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 직무 불일치 현상에 대한 보다 면밀한 실증 분석 필요

- 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층 중 '최종학교 전공 분야와 일자리의 직무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0.8%로 나타나 청년 2명 중 1명은 전공 분야와 일치하지 않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등교육 보편화[1]로 인한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초과 공급은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며, 더욱이 좋은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어 일자리 미스매치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국가와 대학 수준에서 대졸 청년층의 직무 불일치 현황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이 글에서는 2005년과 2015년 대졸 청년층의 직무 불일치 잠재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특성 및 변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국가와 대학 수준에서 직무 불일치 현상을 파악하고 대졸 청년층이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며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분석 자료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2005년도, 2015년도 졸업생 자료)

- 분석 자료: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2005년 및 2015년도 졸업생 자료
  – 매년 2~3년제 및 4년제 대학, 교육대학 졸업자 1만 8천 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이들의 교육과정, 구직활동, 일자리 경험, 직업훈련, 자격증, 개인 신상 정보 및 가계 배경 등을 1회 횡단으로 조사
- 분석 대상: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첫 번째 직장에서 정규직 임금근로자(무기계약직 포함)로 근무한 청년 6,033명(2005년 졸업생: 3,698명, 2015년 졸업생: 2,335명)
- 분석 방법: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2]
  – '직무–교육 수준 일치[3]', '직무–기술(기능) 수준 일치[4]', '직무–전공 일치[5]' 의 세 개 변수를 활용한 잠재계층 분석에서 도출된 직무 불일치 유형별로 특성을 비교 분석함.

| 각주 |

1)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1990년 33.2% → 2017년 68.9%로 해당 기간 동안 2배 이상 증가(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7.8.31.일자 보도자료)

2) 참여자들의 범주형 응답을 분석하여 하나의 집단 내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복수의 하위 집단(혹은 유형)을 분류해내는 분석 방법

3) "현재 일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일의 수준이 자신의 교육 수준과 비교하여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값

4) "현재 일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일의 기술(기능) 수준이 자신의 기술(기능) 수준과 비교하여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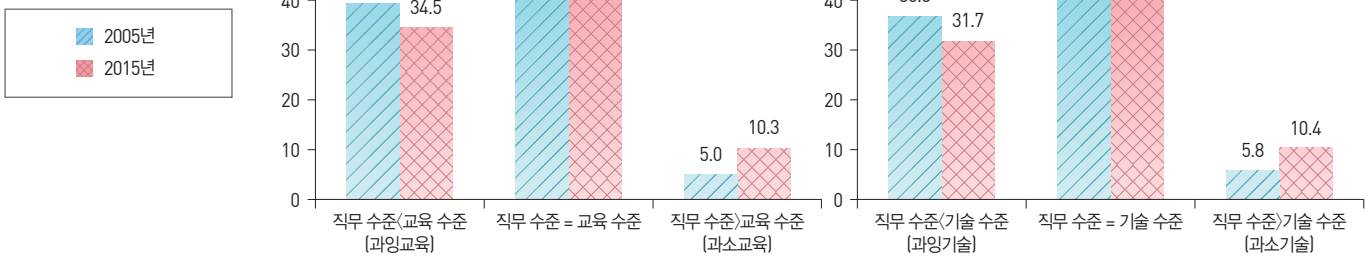
5) "현재 일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일의 내용이 자신의 (편)입학 시 전공[주 전공]과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값

KRIVET 모바일홈

02 직무 불일치 특성 비교: 2005년 졸업자와 2015년 졸업자 비교

| 10년 동안 대졸자의 과잉교육(기술)은 줄어든 반면, 과소교육(기술)은 늘어남.

- 직무 수준과 자신의 교육(기술) 수준이 알맞다고 응답한 대졸자는 55~57% 정도로 2005년과 2015년 모두 유사하게 나타남.
- 직무 수준이 자신의 교육 수준에 비해 낮은 과잉교육 응답 비율은 2005년 39.3%에서 2015년 34.5%로, 5%p 가량 낮아짐. 과잉기술 응답 비율 또한 2005년 36.8%에서 2015년 31.7%로 5%p 가량 줄어듦.
- 이에 반해 직무 수준이 자신의 교육 수준보다 높은 과소교육 응답 비율은 2005년 5.0%에서 2015년 10.3%로 높아짐. 과소기술 응답 비율 또한 2005년 5.8%에서 2015년 10.4%로 높게 나타남.
- 2005년 대비 2015년 대졸자의 경우 교육(기술) 수준에서의 직무 불일치 비율은 큰 차이가 없지만, 과잉교육(기술)의 비율이 줄고 과소교육(기술)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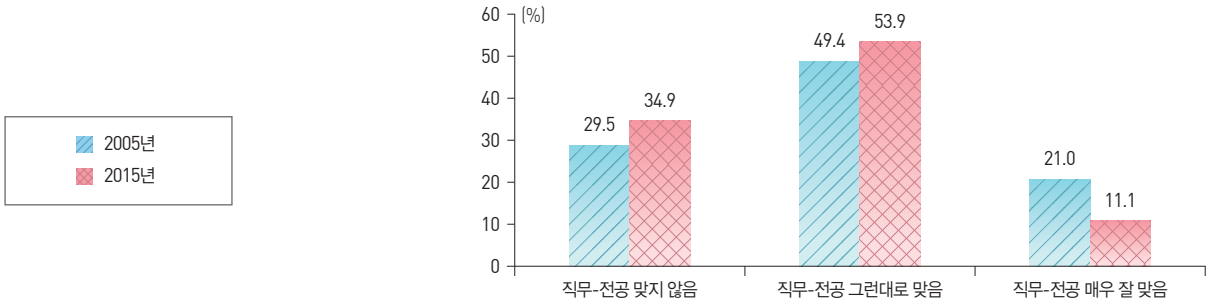


[그림 1] 직무–교육 불일치 수준 비교

[그림 2] 직무–기술 불일치 수준 비교

| 직무–전공 불일치 대졸자는 늘어난 반면, 직무–전공이 매우 잘 맞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줄어듦.

- 직무와 본인의 전공이 맞지 않다고 응답한 대졸자는 2005년 29.5%에서 2015년 34.9%로 5.4%p 늘어남.
  - 직무와 전공이 매우 잘 맞는다고 응답한 대졸자는 2005년의 21.0%에서 2015년 11.1%로 10%p 가량 줄어듦.



[그림 3] 직무–전공 불일치 수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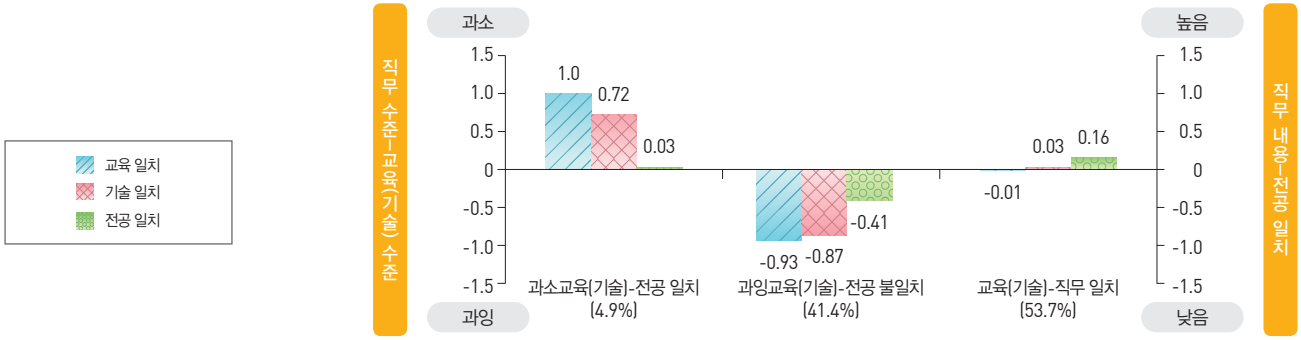
03 직무 불일치 유형 분류 결과: 2005년 졸업자와 2015년 졸업자 비교

| 2005년 졸업자들은 '교육(기술)–직무 일치 집단', '과잉교육(기술)–전공 불일치 집단', '과소교육(기술)–전공 일치 집단' 순으로 유형을 분류할 수 있음.

- 2005년 졸업자들의 절반가량(53.7%)은 '교육(기술)–직무 일치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41% 정도의 졸업자들은 '과잉교육(기술)–전공 불일치 집단', 나머지 5% 가량의 졸업자들은 '과소교육(기술)–전공 일치 집단'에 해당함.
  - '교육(기술)–직무 일치 집단'은 전공과 부합하는 일자리에서 자신의 교육 수준과 기술 수준에 알맞은 직무를 담당하는 유형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과잉교육(기술)–전공 불일치 집단'은 자신의 교육 수준이나 기술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여기고 있으며, 전공과도 부합하지 않는 직무를 수행하는 유형임(과잉교육: 교육(기술) 〉 직무 수준).

– '과소교육(기술)–전공 일치 집단'은 비교적 전공과 일치하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지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교육이나 기술 수준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집단임(과소교육: 교육(기술) 〈 직무 수준).



[그림 4] 2005년 대졸자의 직무 불일치에 대한 잠재계층 분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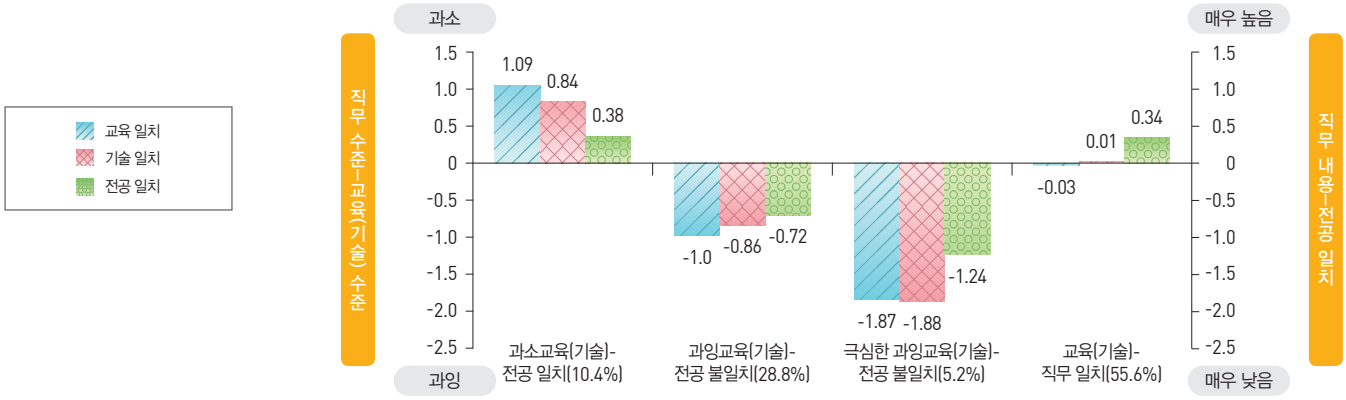
| 2015년 졸업자들은 '교육(기술)–직무 일치 집단', '과잉교육(기술)–전공 불일치 집단', '과소교육(기술)–전공 일치 집단', '극심한 과잉교육(기술)–전공 불일치 집단' 순으로 유형을 분류할 수 있음.

● 2015년 졸업자들의 절반 이상(55.6%)은 '교육(기술)–직무 일치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9% 정도의 졸업자들은 '과잉교육(기술)–전공 불일치 집단'에 속하였으며, 10.4% 가량의 졸업자들은 '과소교육(기술)–전공 일치 집단'에 해당함.

● 2005년에는 나타나지 않던 '극심한 과잉교육(기술)–전공 불일치 집단' 유형이 2015년에는 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최근 들어 심각한 직무 불일치를 경험하고 있는 대졸자들이 존재함을 추정해볼 수 있음.

– '극심한 과잉교육(기술)–전공 불일치 집단'은 직무 내용이 자신의 전공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자신의 교육 수준이나 기술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임(과잉교육: 교육(기술) 〉〉 직무 수준).

– 2005년과 달리 2015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는 동일한 항목을 5점 척도로 상세 측정하였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주의를 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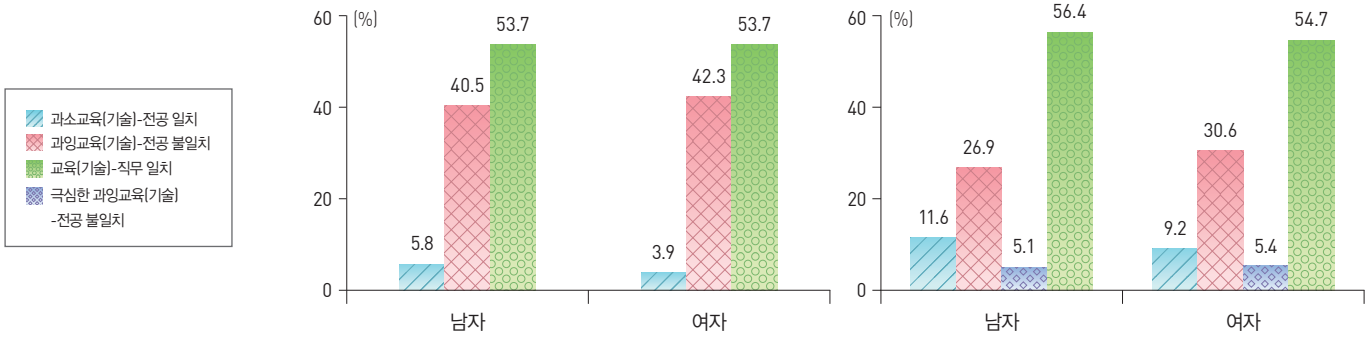
[그림 5] 2015년 대졸자의 직무 불일치에 대한 잠재계층 분류 결과

| 성별에 따른 직무 불일치 유형 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음.

● 2005년과 2015년 모두 직무 불일치 유형 분류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2005년의 경우 남자와 여자 모두 '교육(기술)–직무 일치 집단', '과잉교육(기술)–전공 불일치 집단', '과소교육(기술)–전공 일치 집단' 순으로 유형을 분류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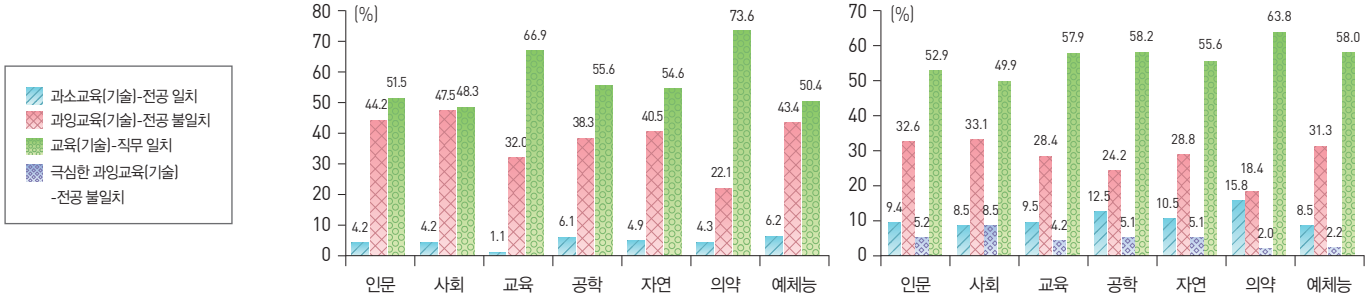
– 2015년의 경우 남자와 여자 모두 '교육(기술)–직무 일치 집단', '과잉교육(기술)–전공 불일치 집단', '과소교육(기술)–전공 일치 집단', '극심한 과잉교육(기술)–전공 불일치 집단' 순으로 유형을 분류할 수 있음.



[그림 6] 2005년 대졸자의 성별 직무 불일치 유형 차이 [그림 7] 2015년 대졸자의 성별 직무 불일치 유형 차이

| 전공에 따른 직무 불일치 유형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 2005년과 2015년 모두 상대적으로 의약계열 및 교육계열과 같이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목적형 교육이 이루어지는 전공계열에서 '교육–직무 일치 집단'의 비율이 높고, 불일치 비율 또한 낮음.
  – '과잉교육–전공 불일치 집단' 및 '극심한 과잉교육–전공 불일치 집단'은 인문 · 사회 계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의약계열과 교육계열의 경우 2005년 대비 2015년에 '과소교육–전공 일치 집단'의 비중이 다른 계열에 비해 급증함.
  – 해당 계열 졸업자의 경우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교육 및 기술 수준이 직무의 내용 및 수준에 비해 낮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함.



[그림 8] 2005년 대졸자의 전공별 직무 불일치 유형 차이 [그림 9] 2015년 대졸자의 전공별 직무 불일치 유형 차이

04 시사점

- 2005년과 2015년 모두 절반가량의 응답자들은 직무와 교육/기술 수준의 불일치를 경험하고 있으며, 전공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음. 잠재계층분석 결과에서도 절반가량의 대졸자들은 직무 불일치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과소교육(기술)–전공 일치' 유형이 2배가량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직무 불일치 관련 논의를 과잉교육(기술)뿐만 아니라 과소교육(기술) 측면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음. 특정 전공계열(의약, 교육)에서 이러한 과소교육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전문직에서의 과소교육 유발 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고등교육의 책무성을 고려할 때 대학 졸업자들의 직무 불일치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정부 및 대학 차원에서 재학생들을 위한 충분한 취업 정보 제공과 진로 · 취창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요구됨. 또한 사회에 진출한 졸업자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과소 혹은 과잉교육에 놓인 대졸자들의 필요를 파악하여 현장에서의 재교육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이를 대학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환류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길 혜 지 (충북대학교 조교수)
김 영 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